

외국어에 도전받는 한민족의 자랑 한글 투쟁사

한글전쟁 김홍식 지음

실학자·소설가인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에 등장하는 평민은 돈을 주고 산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양반가에서 쓰는 말을 따로 배운다. 우스꽝스럽지만 언어에는 권력과 투쟁이 도사리고 있다. 비단, 이는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다. 과거 러시아의 귀족들은 자신의 말 대신 불어를 써야 품격있다고 생각했다.

한민족의 자랑인 한글도 이런 투쟁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김홍식 도서출판 서해문집 대표가 올 한글날을 앞두고 출판한 단행본 '한글전쟁'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잘 녹아 있다.

1443년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



1443년 창제 450년만에 문자 인정 한글-한문 여전히 '문자전쟁'중

음을 반포했지만 우리의 고유 문자로 자리 잡기에는 한자가 쌓아 올린 문화

의 벽이 높고 탄탄했다. 또 현대에는 영어로 대표되는 외래어의 습격도 거세다. 한글이 한 나라의 정식 문자로 인정받은 흔적은 지난 1894년 11월 22일 고종의 칙령에서 찾을 수 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50년이 지나서야 정식 문자로 인정받게 됐다. 또 1년 후 순 한글 신문이었던 '독립신문'의 창간은 한글 역사에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한글이 한문과 동등한 위

그리고 외국인들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그들의 바람은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40년대가 되자 해외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고 제2언어로 쓰지 않는 세대가 등장했다. 또 과거 한글 전쟁이 '한글-한자'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현재는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으로 변했다. 그리고 외국어 대 우리말 전쟁으로 변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우리는 한글 전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 결과 많은 신문에서 한자가 사라졌다.

한글-한자 간 대결은 냉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어의 습격은 심각한 상태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서해문집·1만7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이탈로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판)

소설의 첫 문장이 그 소설의 형식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도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사신으로 방문했던 도시들을 쿠빌라이 칸에게 묘사했을 때 칸이 그의 말을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었다."

이탈로 칼비노 (1923~1985)가 "마치 시를 쓰듯 여러 가지 영감에 따라 썼다."는 이 소설의 문체는 환상과 알레고리다. '동방견문록'의 마르코 폴로가 쿠빌라이 칸에게 들려주는 대화체 여행기. 가장의 도시를 묘사하는 이 마법적 상상력에 칼비노의 공간에 대한 깊은 사유가 들어있다.

"도시는 페스트로 인해 대들보와 코니스트들이 무너져 내리고(.....), 보수를 담당한 관리들이 계층을 부리거나 휴가를 가버려 곳곳이 녹슬고 폐쇄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지금여기' 도시의 상황과 절묘하게 일치하고 있다.

"음란한 딸림이, 도시 중에서도 가장 순결한 도시 클로에를 계속 움직입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계속 부질없는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한다면, 모든 유령이 사람이 되어 추적, 거짓, 오해, 충돌, 억압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고."

이 문장을 베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음란한 거짓이, 도시 중에서



보이지 않는 도시들

이탈로 칼비노

새로 나온 책

▲품격경영(상·하)=상위 1%를 위한 글로벌 교섭문화 백서. 대한민국은 품격경영, 기술경영을 넘어 품격경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글로벌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글로벌 매너로 세계의 리더들과 전하를 논할 수 있는 소통 능력, 협상 능력을 키워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경영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이 책은 아직 우리 경영 현장에서 부족한 품격에 대해 다룬다.

〈동문선·각 권 2만6000원〉

▲미치광이 예술가의 부활절 살인=실제 범죄사건 논픽션 작가 해럴드 세터의 소설. 아찔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주로 짝이온 아리따운 모델이 나체로 살해된다. 광고업계도 살인 현장에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빅맨 플러스'.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선정성만을 노리는 언론은 정신없이 모여들어 그들의 허구를 만들어낸



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처음북스·1만7000원〉

▲왜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 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저자는 현재의 금융 위기가 돈에 대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교육의 위기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하며 자녀를 현실 세계에 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현실 세계의 답을 찾는 방법, 즉 '금융 지능'을 높이는 법을 부자 아빠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통해 명쾌하게 들려준다.

〈민음인·1만6000원〉

▲괴테가 읽어주는 인생=일본의 철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데키나 오사무의 책.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 불리던 남자, 니체·베르톨트·나폴레옹·헤세 등 수많은 예술가·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250년이 지난 후세까지 그 기세가 여전히 위용을 떨치는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그가 읽어주는 인생은 어떤 것일까. 저자는 괴테의 대표작 '친화력'에서 발췌한 문장을 인간 관계, 사랑, 성공 등 살면서 매순간 감동하게 되는 여덟 가지 대표 키워드로 나눴다.

〈흐름출판·1만3000원〉

▲난세의 어진 글, 주해 천자문=누구나 쉽게 천자문을 깊이 읽도록 편집한 허

경진의 '현대 한국어 주해본'. 천자문 주해의 전통을 이어받되, 글자의 음과 뜻은 물론 절과 구의 속뜻까지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도판을 곁들였다. 한자 공부만이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동양인문 공부의 폭과 깊이를 다할 수 있도록 한 완전체 새로운 '천자문' 주해본이다. 1천 글자에 담긴 뜻과 지혜를 익힐 수 있다.

〈알마·1만7500원〉

▲추사집=서예가로서뿐 아니라 사상가, 금석고증학의 전문가로서 진경시대 문화의 진경을 보여준 추사 김정희가 남긴 다양한 분야의 글과 작품을 가려 담은 책. 간송미술관 최완수 선장의 첫 노작이었던 '추사집'이 40년만에 새롭게 출간됐다. 서화(書畵), 경학, 불교학, 금석고증학에 이르는 김정희의 커다란 족적은 물론이고 정치적 파고들 해쳐 가며 살아간 한 선비의 내밀한 심경까지 고스란히 담은 정선(精選) 문집이다.

〈현암사·7만5000원〉

어린이 책

▲토머스 제퍼슨, 도서관을 짓다=책을 사랑했던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의 이야기. 토머스 제퍼슨이 왜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게 됐는지, 누구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으며, 수많은 장서를 어떻게 의회 도서관으로 보내게 됐는지 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의 흥미로운 책 이야기를 설명한다.

〈봄나무·1만1000원〉

▲손톱 공룡=이제 막 엄마를 잃고 할



머니 집에서 살게 된 준호. 아버지는 빚쟁이들에 쫓겨 중국으로 떠나고, 나이 많은 할머니는 준호에게 낯설고 어렵기만 하다.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하

는 준호앞에 세상 누구에도 없는 특별한 친구가 생긴다. 바로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손톱 공룡이다.

〈바람의 아이들·8500원〉

▲시골 꼬마 만복이=어른들을 위한 동화 '연어'로 독자층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안도현 시인의 동화집. 어린이들의 부모 세대가 겪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며, 온종일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던 엄마 아빠의 어린

날 모습이다. 시처럼 노래처럼 읽는 안도현 동화다.

〈한솔수북·9000원〉

▲내 일 탐구수=어린이들에게 미래의 직업을 흥미진진하게 탐색하게 하는 책. 초등학교가 가장 궁금해 하는 17개의 직업인의 일을 생생하게 체험하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직업의 장단점, 전공과 적성까지 알차 정보를 담았으며 직업인의 사진과 인터뷰, 재미있는 만화로 흥미진진하게 구성했다.

〈서울문화사·1만2000원〉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춘문에 소설 당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CHANNEL A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